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12. 12. ~ 12. 18.

전남농업정보 115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사과·배 저장·가격·면적
-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동향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해외 소비 트렌드 파악해 유자차 수출 재도약 노려야
- 베트남 롯데마트 전점서 우리 딸기 상시판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 농토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성황
- 폭설 시 가축관리 요령 제시

정책동향

- 전남도, 올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총 1천 622억
-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52만톤으로 확대

사업신청 및 홍보

- GAP 실천기술 담은 영농기술서 나와
- AI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2도, 최고기온: 6~10도)보다 높다가 중반부터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사과 저장·가격·면적
- 배 저장·가격·면적
-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담양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총력
- 곡성군, 농업 숯가루 100톤 무료공급
- 고흥군, 서울 한복판서 유자 생과 판매 홍보 나서
- 장흥군,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 성료
- 강진군, 강진은 지금 거대한 딸기 실험장
- 영암군, 2017년 재배용 벼 보급종 신청
- 무안군, 양파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성공, 본격 시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해외 소비 트렌드 파악해 유자차 수출 재도약 노려야

▸ 베트남 롯데마트 전점서 우리 딸기 상시판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양질 조사료 위주 급여를 위한 한우 거세우 TMR 사료배합비 활용

▸ 찻잎 퓨레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면 제품개발

▸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기사항 분석

▸ 식용 벼메뚜기의 경제적인 수확시기 설정

▸ 아스파라거스 1년 2회 장기수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경 경엽의 제거시기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경제적 가온방법

▸ 전남 농토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성황

▸ 저온 플라즈마 미래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

▸ 마늘재배 논에 해담쌀 심으면 OK

▸ 겨울철 한파, 복숭아나무 원줄기 보온자재로 대비

▸ 폭설 시 가축관리 요령 제시

❀ 정책 동향 38

▸ 전남농기원, 창업교육으로 농식품 창업가 27명 양성

▸ 전남도, 올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총 1천 622억

▸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52만톤으로 확대

▸ AI 총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강화

❀ 해외 농업정보 ····· 43

▸ 호주, 유기농시장 성장세 지속

▸ 미국 FDA, 식품 안전성 강화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2. 1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 유입과 주요 생산지역의 냉해에 대한 우려 등에 지지를 받아 장 초반 상승하였으나 장 막판 다시 하락하며 보합세로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수급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아 전일 대비 0.1% 하락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유지작물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한 기대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7

▸ GAP 실천기술 담은 영농기술서 나와

▸ 12월 21일, 24절후의 스물두 번째 절기 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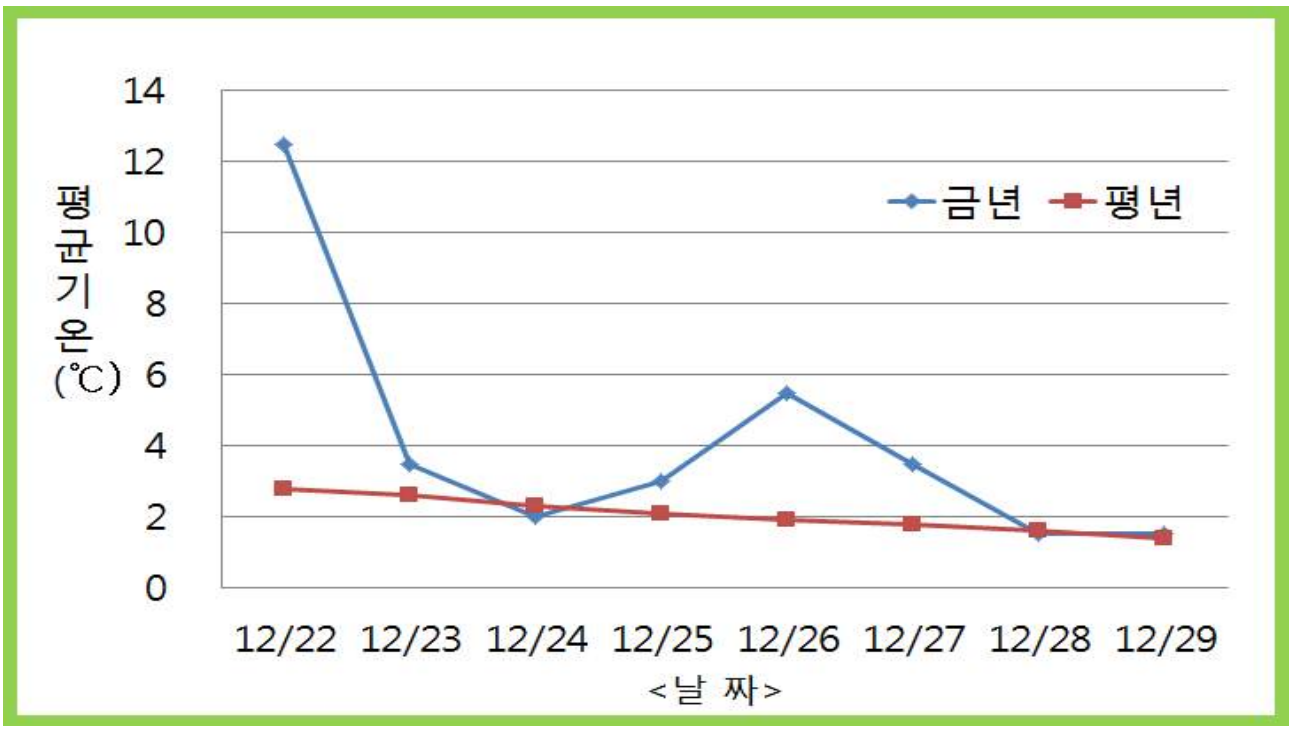
▸ AI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1	2.1	2.1	7.0	7.0	0.0	1.3	-1.8	3.1	0.8
12. 22.(목)	12.5	2.8	9.7	13.0	7.8	5.2	12.0	-1.3	13.3	0.8
12. 23.(금)	3.5	2.6	0.9	4.0	7.6	-3.6	3.0	-1.4	4.4	0.8
12. 24.(토)	2.0	2.3	-0.3	5.0	7.3	-2.3	-1.0	-1.6	0.6	0.6
12. 25.(일)	3.0	2.1	0.9	8.0	7.0	1.0	-2.0	-1.7	-0.3	0.7
12. 26.(월)	5.5	1.9	3.6	8.0	6.9	1.1	3.0	-1.9	4.9	0.8
12. 27.(화)	3.5	1.8	1.7	6.0	6.6	-0.6	1.0	-2.0	3.0	0.7
12. 28.(수)	1.5	1.6	-0.1	6.0	6.4	-0.4	-3.0	-2.2	-0.8	0.9
12. 29.(목)	1.5	1.4	0.1	6.0	6.2	-0.2	-3.0	-2.4	-0.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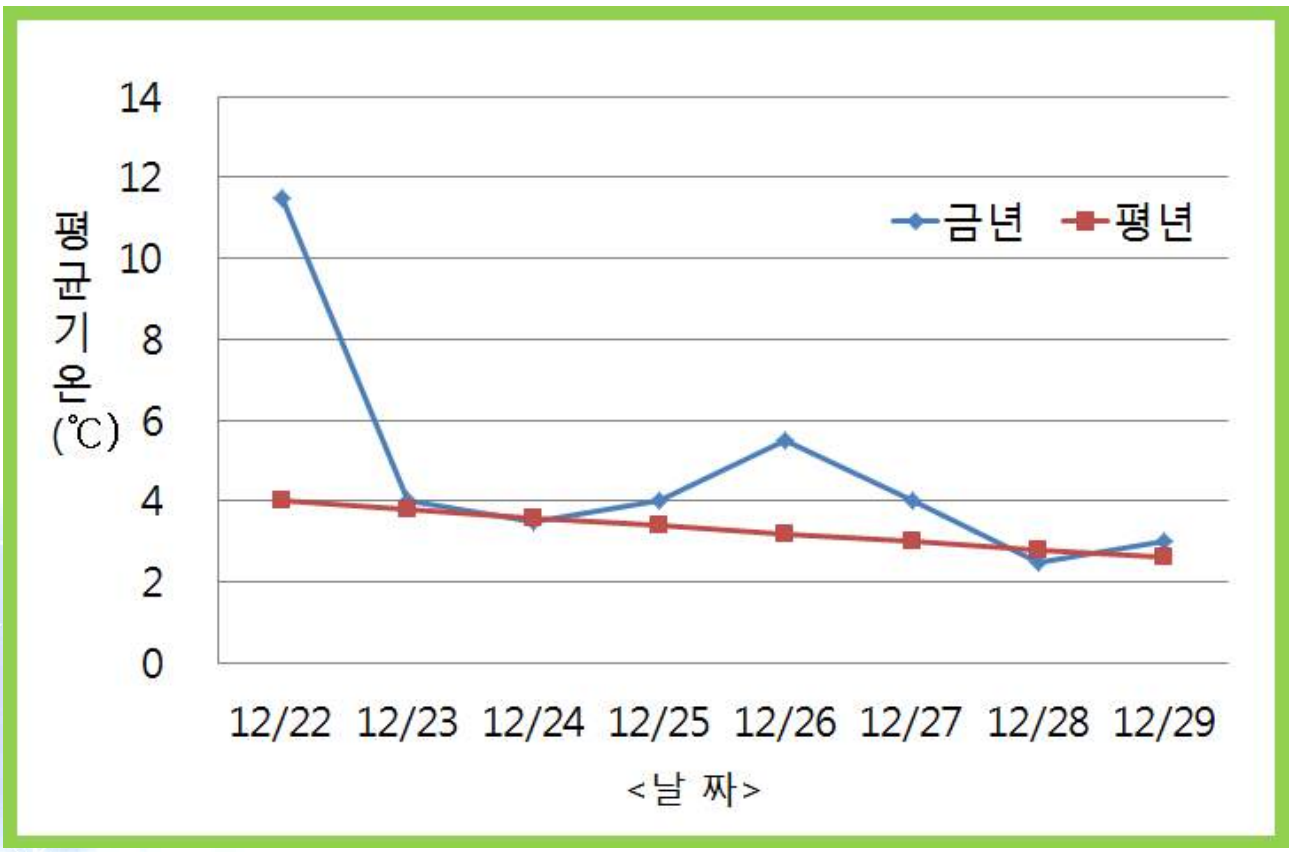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8	3.3	1.5	7.1	8.0	-0.8	2.4	-0.1	2.5	0.6
12. 22.(목)	11.5	4.0	7.5	12.0	8.7	3.3	11.0	0.5	10.5	0.6
12. 23.(금)	4.0	3.8	0.2	5.0	8.5	-3.5	3.0	0.3	2.7	0.6
12. 24.(토)	3.5	3.6	-0.1	6.0	8.3	-2.3	1.0	0.2	0.8	0.5
12. 25.(일)	4.0	3.4	0.6	8.0	8.1	-0.1	0.0	0.0	0.0	0.6
12. 26.(월)	5.5	3.2	2.3	7.0	7.9	-0.9	4.0	-0.3	4.3	0.7
12. 27.(화)	4.0	3.0	1.0	6.0	7.5	-1.5	2.0	-0.4	2.4	0.6
12. 28.(수)	2.5	2.8	-0.3	6.0	7.4	-1.4	-1.0	-0.6	-0.4	0.7
12. 29.(목)	3.0	2.6	0.4	7.0	7.2	-0.2	-1.0	-0.8	-0.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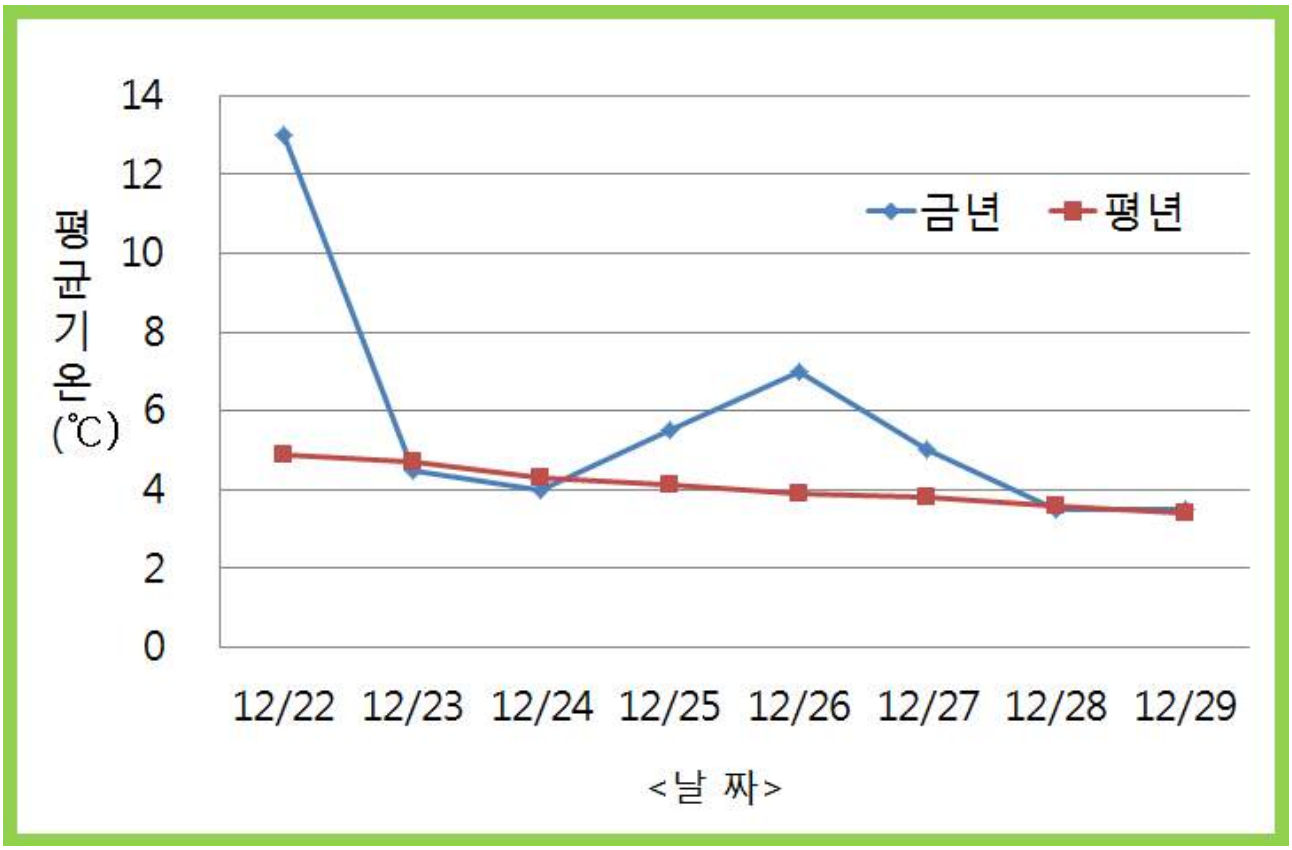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8	4.1	1.7	8.1	8.0	0.1	3.4	0.9	2.5	0.4
12. 22.(목)	13.0	4.9	8.1	14.0	8.8	5.2	12.0	1.7	10.3	0.4
12. 23.(금)	4.5	4.7	-0.2	6.0	8.6	-2.6	3.0	1.4	1.6	0.3
12. 24.(토)	4.0	4.3	-0.3	7.0	8.3	-1.3	1.0	1.1	-0.1	0.3
12. 25.(일)	5.5	4.1	1.4	8.0	8.1	-0.1	3.0	1.0	2.0	0.5
12. 26.(월)	7.0	3.9	3.1	9.0	7.9	1.1	5.0	0.8	4.2	0.5
12. 27.(화)	5.0	3.8	1.2	7.0	7.7	-0.7	3.0	0.6	2.4	0.4
12. 28.(수)	3.5	3.6	-0.1	7.0	7.5	-0.5	0.0	0.4	-0.4	0.4
12. 29.(목)	3.5	3.4	0.1	7.0	7.4	-0.4	0.0	0.2	-0.2	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사과 저장 · 가격 · 면적

❑ 저장 : 올해 사과 저장량 지난해보다 6% 감소 추정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5% 적은 55만 1천톤으로 전망된다.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6%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올해 저장사과 크기는 지난해보다 크겠으나, 경도가 낮아 설 이후 장기 저장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과 생산, 저장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저장량
2016년	32,409	1,701	551	322.9
2015년	31,620	1,843	583	343.3
증감률	2.5	-7.7	-5.4	-6

❑ 가격 : 12월 사과 가격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12월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12월 사과(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지난해(23,522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천~2만 6천원으로 전망된다.

○ 사과 전체 저장량은 적으나 설 사과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 조사결과 후지의 대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에 필요한 대과 위주로 저장이 많기 때문이다.

❑ 면적 : 내년 사과 재배면적 금년보다 2% 증가 전망

○ 2017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한 3만 2,935ha로 전망된다.

배 저장 · 가격 · 면적

❑ 저장 : 배 저장량 지난해보다 1% 감소 추정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폭염으로 비대가 나빠 지난해보다 2% 감소한 25만 6천톤으로 추정된다. 저장량(12월~금년 7월)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장배 당도는 좋지만, 경도는 나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올해 미세열과와 무름과가 지난해보다 많기 때문이다.

○ 배 생산, 저장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저장량
2016년	10,882	2,354	256	128
2015년	12,664	2,061	261	129.1
증감률	-14.1	14.2	-1.9	-0.9

❑ 가격 : 12월 배 가격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12월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순에는 저장성이 낮은 무름과의 소과 위주의 출하가 많아 가격이 낮겠지만, 중순 이후에는 품질이 좋은 배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지난해(31,825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8천~3만원으로 전망된다.

❑ 면적 : 2017년 배 재배면적 금년보다 2% 감소 전망

○ 2017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한 1만 703ha로 전망된다. 성목과 유목면적은 금년보다 각각 1,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감소 요인은 도시개발, 작목전환 등으로 파악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장배추 최근 가격 및 산지동향

❑ 가격동향 : 12월 배추가격 11월 하순 대비 하락

○ 12월(12. 1.~15.) 배추 평균가격은 11월 하순(8,752원/10kg)보다 다소 낮은 8,400원

- 12월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김장수요 감소로 11월 하순보다 소폭 하락
- 다음 주 가격은 김장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이나, 산지 출하량이 줄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산지동향 : 12월 상순 이후 김장배추 출하는 전남이 시장의 80% 이상 점유

○ (전북) 주 출하지역 : 고창·부안

- 산지작황 : 정식 및 생육기 적절한 강우로 작황 보통
- 출하동향 : 현재까지 가을배추 출하는 97%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마무리 단계

○ (전남) 주 출하지역 : 해남·진도

- 산지작황 : 생육기 잦은 비와 이른 한파로 작황 부진하나, 최근까지 꾸준한 포전관리로 작황은 다소 회복세
- 출하동향 : 출하는 90% 내외 완료되었으며, 12월 23일 전후로 대부분 마무리, 김장 종료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출하량은 감소 추세, 김치공장 및 절임배추 출하는 10% 내외

○ 주산지별 출하량을 감안하였을 경우, 현재(12. 15.)까지 김장은 약 94% 진행되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김장은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2. 1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9)	1주일전 (12/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2,400	32,400	32,400	36,200	42,240	↓ 10.5	↓ 23.3
	콩(백태)	35kg	187,800	187,800	183,600	148,400	164,467	↑ 26.5	↑ 14.2
	고구마(밤)	10kg	24,800	25,200	24,900	22,400	22,693	↑ 10.7	↑ 9.3
	감자(수미)	20kg	32,600	33,000	29,950	25,050	25,190	↑ 30.1	↑ 29.4
채소류	배추(가을)	1kg	920	920	955	418	413	↑120.1	↑122.8
	양배추	10kg	14,600	14,000	15,950	3,525	4,887	↑314.2	↑198.8
	오이(다다기계통)	10kg	24,333	27,667	20,333	31,583	36,700	↓ 23.0	↓ 33.7
	애호박	8kg	21,800	19,400	18,450	26,950	26,263	↓ 19.1	↓ 17.0
	토마토	10kg	41,000	41,400	29,500	22,900	26,013	↑ 79.0	↑ 57.6
	당근	20kg	74,200	74,400	72,250	25,100	23,553	↑195.6	↑215.0
	건고추(화건)	60kg	580,000	580,000	580,000	799,500	875,667	↓ 27.5	↓ 33.8
	풋고추	10kg	51,200	47,200	66,550	49,400	51,027	↑ 3.6	↑ 0.3
	마늘(깐마늘)	20kg	148,000	148,000	148,000	143,000	110,200	↑ 3.5	↑ 34.3
	양파	20kg	21,200	21,200	21,000	33,900	19,170	↓ 37.5	↑ 10.6
	대파	1kg	2,440	2,500	2,408	2,010	1,620	↑ 21.4	↑ 50.6
	파프리카	5kg	26,000	26,400	24,000	21,100	28,723	↑ 23.2	↓ 9.5
	멜론	8kg	28,600	28,000	27,200	28,700	27,967	↓ 0.3	↑ 2.3
	방울토마토	5kg	27,800	28,400	23,950	13,600	18,560	↑104.4	↑ 49.8
	수박	1개	16,800	16,000	14,300	18,200	12,420	↓ 7.7	↑ 35.3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8,800	38,200	37,800	35,200	43,467	↑ 10.2	↓ 10.7
	배(신고)	15kg	38,800	37,800	35,900	43,600	42,013	↓ 11.0	↓ 7.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19)	1주일전 (12/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3,000	519,600	513,600	529,000	541,667	⬇ 1.1	⬇ 3.4
	느타리버섯	2kg	14,600	14,600	14,600	11,800	11,683	⬆ 23.7	⬆ 25.0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8,800	8,550	8,370	⬇ 4.1	⬇ 2.0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7	7,851	7,833	7,688	6,535	⬆ 2.1	⬆ 20.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83	1,934	1,899	2,016	1,911	⬇ 1.6	⬆ 3.8
	닭고기	1kg	5,137	5,239	5,702	5,166	5,420	⬇ 0.6	⬇ 5.2
	계란(특란)	30개	6,605	5,954	5,408	5,496	5,648	⬆ 20.2	⬆ 16.9
	우유	1리터	2,528	2,528	2,528	2,550	2,460	⬇ 0.9	⬆ 2.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2. 1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645 천원	5,513 천원	5,842 천원	⬆ 2.3	⬇ 3.3
	거세	5,770 〃	6,021 〃	6,563 〃	⬇ 4.1	⬇ 12.0
송아지 (6~7월)	암	2,638 〃	2,569 〃	2,528 〃	⬆ 2.6	⬆ 4.3
	수	3,096 〃	3,060 〃	3,050 〃	⬆ 1.1	⬆ 1.5
육우(600Kg)		2,893 〃	2,708 〃	3,422 〃	⬆ 6.8	⬇ 15.4
젖소수송아지(7일령)		197 〃	209 〃	310 〃	⬇ 5.7	⬇ 36.4
돼지(110kg)		342 〃	367 〃	362 〃	⬇ 6.8	⬇ 5.5
육계(원/kg)		1,348 원	1,262 원	1,518 원	⬆ 6.8	⬇ 11.1
계란(원/특란10개)		1,470 〃	1,376 〃	1,036 〃	⬆ 6.8	⬆ 41.8
오리(원/kg)		1,933 〃	1,833 〃	2,000 〃	⬆ 5.4	⬇ 3.3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22원/마리 (△652) * (5,658 - 2,332 + 3,096 = 6,422)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담양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우수 농식품 판로개척 총력

○ 담양군은 지난 14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국내 대표 유통회사인 GS리테일과 CJ 유통기획 전문가를 초청, 담양리조트에서 '찾아가는 담양군 우수 농식품 품평·상담회'를 가졌다.

○ 죽향식품 대잎쌀국수·담양농협 무농약 블루베리 원액 100%·고서와인·안복자한과·고려전통식품 무농약 쌀식혜·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죽순·죽순떡갈비·죽로차·포도식초 등 담양을 대표하는 20여개 업체가 품평회를 통해 100여개 품목을 선보이고 생산, 품질, 위생, 포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다.

○ 추후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앞으로 GS25편의점 및 GS슈퍼마켓 전국 매장 GS홈쇼핑 TV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유통망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며, GS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K-FOOD 상품으로 육성된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품평·상담회를 통해 우리군 우수 농식품 이미지 제고와 판매처 확대로 지역 기업체의 매출 제고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리군 농식품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계획"이며 "생산·가공·판매·체험·홍보 등 6차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담양군

곡성군, 농업 숯가루 100톤 무료공급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는 최근 곡성읍과 고달면, 겸면 시설채소 농가와 과수농가 등 30여 농가에 숯가루 40톤을 공급하고 내년 2월까지 2~3회에 걸쳐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60톤의 숯가루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제이무역주식회사(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소재)가 자사에서 발생한 숯가루 100톤을 곡성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공급코자 곡성군에 제안을 했고, 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토양개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숯가루 공급이 진행됐다.

○ 숯의 효능은 농업적으로 토양의 공극률 향상, 미생물 활동 촉진, 중금속 제거 등 토양개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 관계자는 "숯가루 사용량은 시설하우스의 경우 10a 당 150kg 정도로써 특히 pH가 8~10으로 높은 편이어서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블루베리 재배 지역에는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 출처 : 곡성군

고흥군, 서울 한복판서 유자생과 판매 홍보 나서

○ 고흥군은 20일까지 유자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뉴코아 강남점에서 '고흥유자 특별전' 판촉행사 자리를 마련해 대도시권 유자 소비촉진에 나섰다.

○ 이번 특별전은 지난 1일 이랜드 리테일 주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평회에 출품된 '고흥유자'의 깊은 맛과 향에 매료된 이랜드 리테일 측과 유자생과 판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흥군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성사되었다.

○ 이랜드 리테일은 이번 행사를 위해 유기농 유자 및 일반 유자 2,100kg을 구입했고, 추후 판매추이에 따라 추가로 물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간 정체된 국내 유자 소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유자 가격 하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매년 정기 행사 추진과 판매 품목도 유자 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고흥군은 유자 소비촉진을 위해 △홈쇼핑 방영지원 △KBS·MBC·TV조선 등에서 방영되는 TV 정보프로그램 방송 홍보 △대도시 유자차 담그기 체험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 △고흥군청 및 자매결연도시 산하 공무원 대상 유자생과 구매운동 △향우 대상 서한문 발송을 추진하는 등 유자 판촉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장흥군,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 성료

○ 장흥군은 지난 13일 졸업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모두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 학사 일정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유기농업심화과정은 유기자재 만들기, EM의 증식과 사용법 등 친환경 유기농산물확대를 위한 마인드 함양 등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농가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농촌관광·마을리더 과정은 지도자의 역량이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시각으로 리더로서의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소양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 이날 졸업식에서 유기농업심화과정 학생회장을 맡은 문경호(65세, 부산면) 씨를 비롯한 7명의 수강생은 교육기간 동안 솔선수범한 노력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았다.

* 출처 : 장흥군

강진군, 강진은 지금 거대한 딸기 실험장

- 자체 발명 딸기 육묘판 보급.. 새로운 포장법, 클로렐라 농법 시도 -

○ 지난해 자체 연구개발한 '딸기 육묘판'은 농업인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이에 농림부의 공모 연구비를 받아 기존 육묘폿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급한 결과 모종 소질이 좋아 생육이 왕성한 결과를 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11월초부터 딸기가 생산되면서 새로운 포장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출하하고 있지만 올해 처음 둥근 원형으로 1단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정갈하면서도 선별이 쉬운 방식을 택해 시범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수도권을 목표로 '혼밥'으로 일컬어지는 단출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는 사회분위기와 소비자 취향을 감안하여 위생적으로 소포장화 했다.

○ 군에서는 시범 출하되는 포장재가 정착되고 확대된다면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함께 농업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한편 딸기 실증포장 한 곳에서는 클로렐라 배양농법이 연구 중에 있다. 클로렐라가 자라면서 발생하는 풍부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딸기에 살포함으로써 건강하고 맛있는 딸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농업인들의 열정으로 연구하고 있다.

○ 특히, 농업인들의 열정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은 이미 2006년부터 고설식 수경재배를 도입, 안정적으로 정착되며 현재 재배농가의 약 37%가 재배 중에 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딸기재배 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했고 수질분석, 양액조성, 화아분화 검경 등 까다로운 수경재배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영암군, 2017년 재배용 벼 보급종 신청

○ 영암군(군수 전동평)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순도가 높은 벼 보급종 6개 품종(새누리·미품·운광·새일미·신동진·동진찰벼) 209.1톤을 각 읍·면에 예시량 범위에서 1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 이번에 공급할 벼 품종은 새누리 145, 미품 11, 운광벼 11, 새일미 7.8, 신동진 6.3, 동진찰벼 28톤으로 국립종자원에서 철저한 포장관리로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은 순도 높은 벼 종자이며 공급가격은 2017년 1월 중으로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 특히, 2016년산 보급종 공급량은 수확기 전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수발아가 발생돼 당초 계획량보다 적게 확보되었으며 일미·황금누리 품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보급종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벼 보급종 공급량이 당초계획보다 부족하므로 적정 파종량을 준수해 튼튼한 모 키우기를 해야 하며, 부족한 종자는 농가별 자율교환, 자가 종자 이용으로 우량종자의 확보”를 당부하였다.

* 출처 : 영암군

무안군, 양파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성공, 본격 시판

- 휴대, 복용 용이한 스틱형 제품 2종 출시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주 작물인 양파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연구 개발해온 무안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건강 기능성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상품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국립 목포대학교 약학대학과 무안양파의 약리효과 연구와 상품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 무안양파 껍질 추출물에 혈행개선 항산화력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검증했고, 특히 남성 불임환자의 정자 운동성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확인해 특허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 이러한 효능을 토대로 군은 무안양파를 이용한 '체중조절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생산·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기존 무안 양파즙의 맛을 더욱 개선하고,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편리하도록 만든 스틱형 제품 2종이다.

○ '가르시니아 온'은 체중관리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건강기능성 식품이며, '황금아리 무안양파 진 스틱'은 건강을 챙겨야하는 40대 이상 중년들에게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무안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해외 소비 트렌드 파악해 유자차 수출 재도약 노려야

○ 유자차는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감기예방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한국산 유자차의 인기가 올라간 이후 국내 유자차 수출업체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면서 브랜드 난립과 유자함량을 낮춘 저품질의 제품이 공급되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결국 우리 유자의 수출실적은 정체됐고 국산 유자차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도 바뀌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류창수 유자차수출협의회장은 "중국에서 우리 유자차가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늘자 우리 업체들이 단기적인 매출확대에 급급해 덤핑 및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등 근시안적으로 수출을 진행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 류 회장은 또 "우리 유자차는 단순 가공을 거친 후 비슷한 유리병에 담겨 판매하는 등 20~3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해 이를 제품에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유자차는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유자차 수출물량이 회복되기 위해서 덤핑방지, 고품질 수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가장 먼저 수출업체들이 관습과 정해진 틀을 깨야 한다"며 "유자차수출협의회의 설립목적이 물류비이지만 동종업체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수출업체들이 말로만 덤핑방지, 고품질 수출을 하지 말고 이를 직접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 유자차수출협의회의 변화도 예상된다. 류창수 회장은 “올해는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마크 획득 비용을 지원해 수출용 유자차의 품질 개선에 앞장섰다”면서 “내년에는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수출협의회에서 배제하고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마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마크 설명회와 동영상 제작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또 저품질·저가 유자차 수출로 인한 시장교란방지 및 고급 유자차 중심의 수출시장 재편을 위해서 협의회가 정한 체크프라이스(Check Price : 일정가격 이하 수출계약을 승인하지 않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수출협의회 규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현장 위주의 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류 회장은 “수출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정책수립이나 시행에 적극 가담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차 제품의 용기, 포장 디자인들을 샘플로 제작해주는 등 그동안 조사했던 각종 보고서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베트남 롯데마트 전점서 우리 딸기 상시판매

○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등 6개점에서 국산 딸기 판매를 시작했으며 14일부터는 베트남 13개 전 점포로 확대해 내년 5월까지 상시 판매할 계획이다.

○ 롯데마트는 이번 딸기 판매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 시장에 기획전을 통해 꾸준히 국산 농산물을 소개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 시기를 저울질했다. 올 3월 베트남 호치민의 4개 점포에서 판매한 딸기의 경우 판매가격이 베트남산 딸기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준비된 물량 10톤이 모두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실제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국산 딸기가격은 330g 기준 18만동(약 8,000원)으로 베트남산 딸기보다 약 2배 이상 비싸다.

○ 달랏이라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베트남 딸기는 더운 기후 탓에 당도가 낮고, 크기가 크지 못하지만, 국산 딸기는 무르기와 당도, 크기 면에서 베트남 딸기보다 월등해 베트남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약 500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억원 수준이다. 수출 딸기는 딸기의 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배송한다. 이번에 수출되는 국산 딸기는 경남 진주와 산청지역에서 재배한 것으로 오전에 수확한 뒤 항공으로 운반돼 바로 다음날이면 베트남 점포에 진열되어 고객에게 판매된다.

○ 홍원식 롯데마트 베트남사업부문장은 “지난해부터 롯데마트를 통해 국산 농산물을 소개하며, 베트남 내에서도 우수한 품질이 알려져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며, “베트남 내에서 롯데마트가 가진 유통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국산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양질 조사료 위주 급여를 위한 한우 거세우 TMR 사료배합비 활용

❑ 개발기술 내용

○ 거세 한우 비육 시 조사료 위주 급여로 사료비 절감

○ 조사료 위주 급여 TMR 사료배합비 (2015)

	육성기 (8.5~12개월령)		비육전기 (13~18개월령)		비육중기 (19~24개월령)		비육후기 (25~32개월령)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시험1구	시험2구
알팔파	3.27	-	-	-	-	-	-	-
볏짚	-	-	16.7	-	14.0	-	7.8	6.8
옥수수사일리지	21.78	32.32	22.3	24.2	10.0	21.7	-	-
IRG(건)	36.63	47.99	25.0	56.4	16.0	33.9	19.5	33.6
보리	5.25	3.92	6.1	4.0	6.0	6.0	5.8	3.4
단백피	4.16	1.96	3.3	1.2	6.5	3.8	11.2	10.1
당밀(사탕수수)	5.25	2.94	2.4	2.4	3.3	2.2	3.4	3.0
소맥피(밀기울)	4.16	1.96	3.3	1.2	4.4	1.8	4.8	3.2
야자박	1.58	0.98	1.7	0.6	2.2	0.9	1.5	1.0
옥수수후레이크	3.07	-	11.2	9.2	21.7	15.8	26.7	25.4
면실	-	-	-	-	3.3	4.0	3.9	2.7
사과박	0.99	0.69	0.8	0.3	1.0	0.4	0.7	0.5
쌀겨(생미강)	4.95	2.94	5.0	8.0	5.0	5.0	5.8	2.7
팜박	1.39	0.49	1.0	0.4	1.5	0.6	1.0	0.7
물	6.44	2.94	2.2	2.0	3.3	2.0	5.8	6.0
비타민광물질첨가제	0.3	0.2	0.3	0.3	0.3	0.3	0.2	0.2
석회석	0.59	0.59	0.7	0.6	0.7	0.6	0.8	0.6
소금	0.2	0.1	0.1	0.04	0.1	0.1	0.1	0.1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거세 한우 비육을 위해 제시한 TMR 사료배합비를 활용하여 사육단계별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중기, 비육후기)로 사료를 제조함

○ 효과적인 증체를 위해 일일사료섭취량이 균일할 수 있도록 한우사양관리 표준(2012)을 준수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구민정, 김상욱, 최영선

찻잎 퓨레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면 제품개발

❑ 개발기술 내용

○ 퓨레 제조기술 개발로 찻잎 이용성 증대

- 퓨레 제조방법 : 차 생잎→증기로 찜→믹스(물 100% 첨가)→포장→냉동

○ 차 생잎 퓨레 이용 가공 제품개발

- 가공 제품 : 녹차 생면, 녹차 호두과자 (퓨레 10% 첨가 양호), 봄찻잎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차 생잎 이용 퓨레 제조공정

- 차 생잎 1kg→증열(100℃, 1분)→냉각(10℃ 냉수)→믹서(찻잎 1kg + 물 1L)
  →퓨레→냉동저장(-20℃)

  ※ 증열 : 증기에서 1분 동안 처리 후 냉각, 찻잎믹스 : 두유기WP6

○ 찻잎 퓨레 첨가 생면 및 호두과자 제조방법 : 퓨레 10% 첨가

- 생면 : 밀가루 100, 퓨레 5~15, 감자전분 0.3, 전탄검 0.1, 소금 0.25, 물 30%
- 호두과자 : 호두과자 믹스 100, 퓨레 5~15, 계란, 소금 0.25, 물 30%

【찻잎 퓨레 첨가 생면 및 호두과자 】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김영옥, 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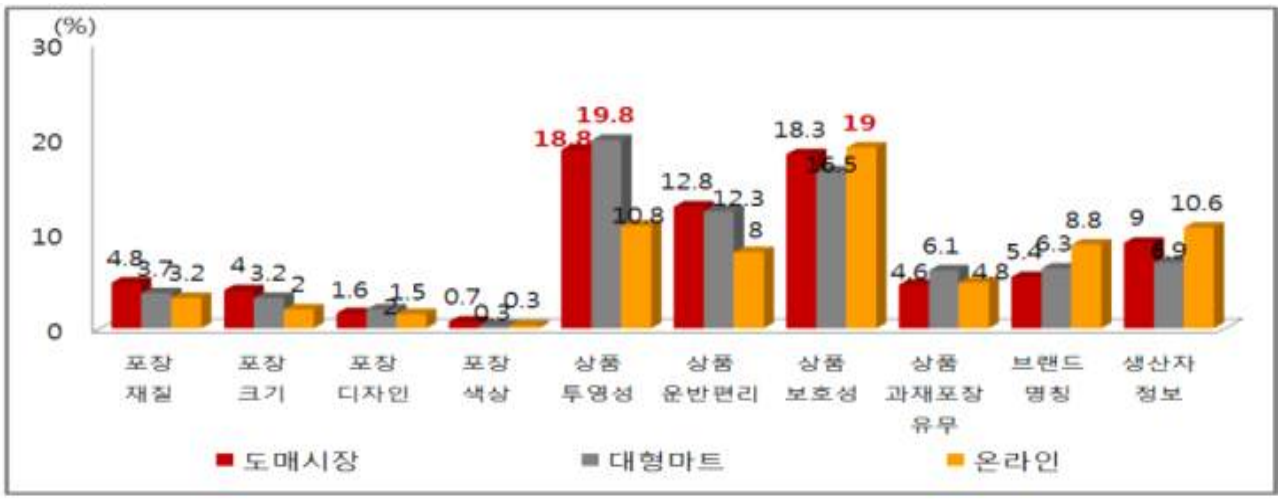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및 표기사항 분석

❑ 개발기술 내용

○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 중요순위(%)는 상품투영성(18.8), 상품의 보호성(18.3), 상품의 운반편리(12.8), 생산자 정보(9), 브랜드 명칭(5.4), 포장박스 재질(4.8), 과대포장 유무(4.6), 포장박스 크기(4), 디자인(1.6), 색상(1.6)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19), 상품 투영성(10.8), 생산자 정보(10.6), 브랜드 명칭(8.8), 상품의 운반편리(8), 과대포장 유무(4.8), 포장박스 재질(3.2), 포장박스 크기(2), 디자인(1.5), 색상(0.3) 순으로 나타남

○ 포장박스 소재(재질)를 선택하는 이유는 구입단위(중량)에 따라 (59), 사용 후 분리수거 편리성(22.2), 친환경 소재(13.5) 등 순으로 나타남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구성요소】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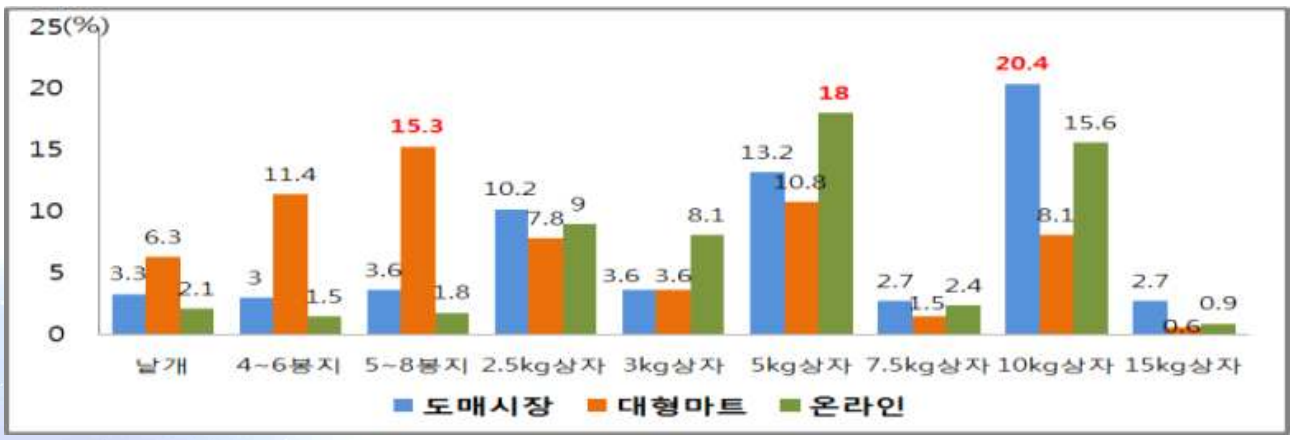
○ 현장 농업인이 사과를 유통시장에 출하할 경우

○ 간접유통(도매시장, 대형마트)에서는 상품투영성(18.8), 보호성(18.3), 운반편리(12.8), 생산자 정보(9), 브랜드 명칭(5.4), 포장박스 재질(4.8), 과대포장 유무(4.6), 포장박스 크기(4), 디자인(1.6), 색상(1.6%) 순을 고려하여 출하해야 함

-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사과의 규격은 10kg 상자 68명(20.4), 5kg상자 44명(13.2), 2.5kg상자 34명(10.2), 5~8봉지 12명(3.6), 낱개 11명(3.3)순, 대형마트는 5~8봉지 51명(15.3), 4~6봉지(11.4), 5kg상자 36명(10.8), 10kg상자 27명(8.1), 낱개 21명(6.3%)순이므로 선호규격을 고려하여 출하

○ 직거래(온라인)에서 사과를 구매할 경우 포장박스 표기사항의 중요순위(%)는 상품의 보호성(19), 투영성(10.8), 생산자 정보(10.6), 브랜드 명칭(8.8), 상품의 운반편리(8), 과대포장 유무(4.8), 포장박스 재질(3.2), 포장박스 크기(2), 디자인(1.5), 색상(0.3) 순이므로 표기사항을 고려하여 출하해야 함

- 온라인에서 5kg상자 60명(18), 10kg상자 52명(15.6), 2.5kg상자 30명(9), 3kg상자 27명(8.1) 순이므로 선호규격을 고려하여 출하



【유통채널별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 포장박스 규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손장환, 박 신, 조동호, 조명수, 임경호

식용 벼메뚜기의 경제적인 수확시기 설정

❑ 개발기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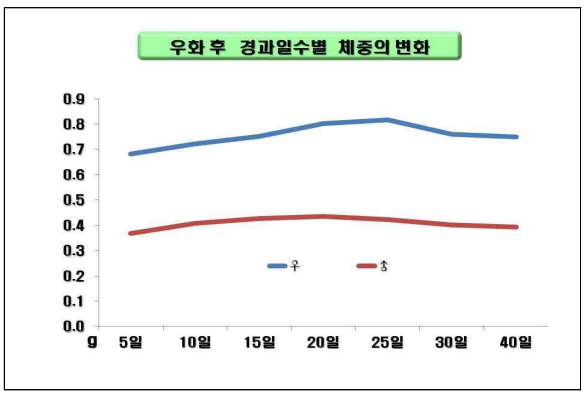
○ 식용을 위한 벼메뚜기의 수확시기는 우화 후 20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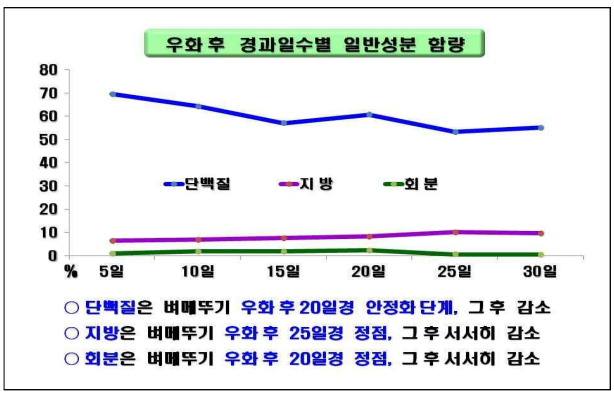
- 다음 세대 사육을 위해서는 별도로 종충과 산란관리가 필요

○ 벼메뚜기 우화 후 수컷은 20일경, 암컷은 25일경 최고 몸무게

- 최고 몸무게 달성 후 먹이와 노동력 투입은 경제적이지 못함

○ 우화 후 경과일수별 체중의 변화와 일반성분 함량 (2015)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식용 벼메뚜기는 우화 후 20일경 수확하는 것이 경제적임

○ 후대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난괴를 확보할 별도의 종충사육 필요

○ 다음 세대 성충 개체수 100~120마리 당 종충은 암수 1쌍이 필요함

우화 후 20일된 성충

다음세대 생산용 종충

산란한 알덩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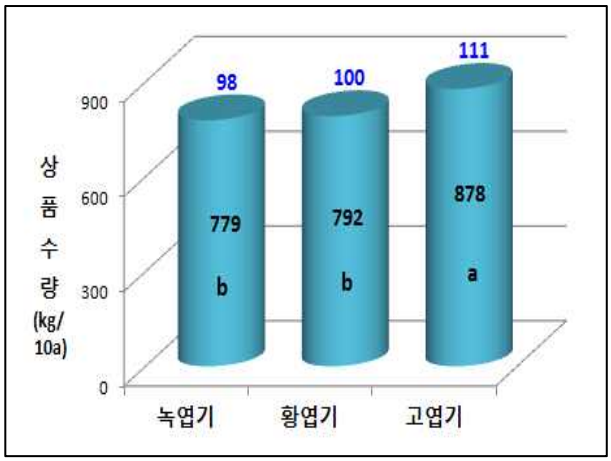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강성주, 김현진, 김선곤

아스파라거스 1년 2회 장기수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경 경엽의 제거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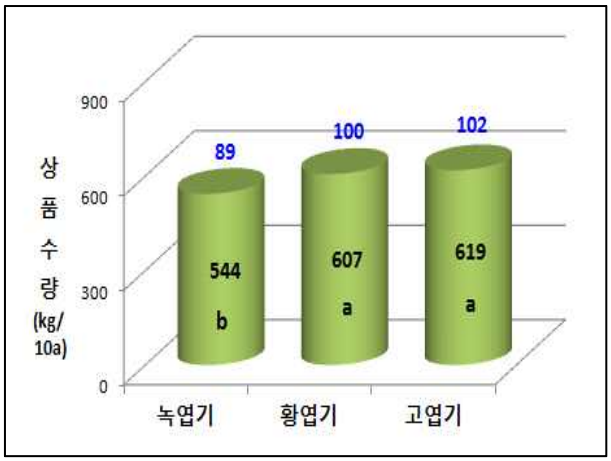
❑ 개발기술 내용

○ 장기재배 양분관리를 위한 입경 경엽의 적정 제거시기 : 고엽기(12월 20일)

- 상품 수량 : 황엽기 대비 봄 수확 11%, 여름수확이 2% 증수되어 봄·여름 1년 2회 수확 총 상품수량은 1,492kg으로 황엽기(1,399kg) 대비 7% 증수



봄 수확 상품 약경 수량 (2015)



여름수확 상품 약경 수량 (2015)

봄·여름 1년 2회 수확 총 상품 약경 수량 (2015)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아스파라거스 봄 수확 후 5월부터 근주의 양분관리를 위한 입경 실시

○ 입경 줄기의 크기는 12~14mm, 줄기수는 주당 3~5대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1개월 후 부터 여름수확을 개시

○ 입경한 경엽은 12월 이후 온도가 내려가 영양분이 근주로 전류가 완료되면 제거하는데 그 제거 시기가 너무 빠르면 양분의 완전한 전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엽이 완전히 황화 후 고엽기에 돌입하면 제거하는 것이 이듬해 봄과 여름 수확 약경 생산성을 향상

○ 줄기제거 시기별 경엽상태

녹엽기

황엽기

고엽기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김효중, 정종모, 김병삼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경제적 가온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인디언시금치 가을작형 월동재배 수량증대를 위한 경제적 가온방법

- 1중 비닐터널 + 1중 부직포 터널 + 전열선 지중가온이 1~2월의 저온기 동안 적정 온도 유지로 상품수량 45% 증수

【10a당 상품수량 및 상품율】

【월별 상품수량】

※ Ⅰ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 Ⅱ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1중 부직포 터널), Ⅲ형(2중 하우스+1중 비닐터널+1중 부직포 터널+지중가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인디언시금치 겨울 월동재배 농가에 영농활용 기술로 보급

○ 아열대채소 연구개발 신기술 재배 지침서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월동기 생산성 증가로 상품수량 증수 : 2,326kg/10a (5,149 → 7,475)

○ 농가소득 증대 : 6,285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전남 농토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성황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친환경농업 내실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016 하반기 종합검정실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올 한해 친환경, GAP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개량제 등의 농업정책 업무지원을 비롯, 가축분뇨 액비분석,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가뭄 시 토양수분 조사 등 각종 분석업무를 추진한 시·군 종합검정실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7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2016년 전남에서는 토양 89천점, 식물체 595점, 중금속 864점, 잔류농약 961점을 분석하였으며, 108천부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가를 지도하는 등 전남 농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 또한, 올 10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농경지 현장 토양진단 처방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3등 수상의 실적도 거두었다.

○ 전남농기원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시·군 종합검정실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에 도비로 '토양현장진단 장비'를 지원하고, 분야별 도단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남 농토지킴이들의 역할을 잘 수행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저온 플라즈마 미래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

- 현미 등 가공제품의 미생물은 줄이고, 효소 활성 높여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면 현미 및 쌀 가공제품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온 플라즈마 기술은 종자 발아, 생장 촉진, 기능성 활성화, 토지 활용 극대화 등 원료 생산 및 재배환경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식품 생산·저장·유통 과정에 플라즈마를 적용하는 기술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 농식품에 적용하는 플라즈마 기술은 저온에서 활성전자, 자외선 등으로 살균을 하는 방식이며, 식품의 저장 및 유통에 적용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

○ 이번 연구에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산업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라즈마 가스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 그동안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소량의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저온 플라즈마는 기존보다 처리량을 늘리고 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다.

○ 현미 및 선식제품에 저온 플라즈마를 20분 동안 처리하면 미생물이 34% 이상 감소해 위생 안전성이 높아진다.

○ 수분흡수율은 약 5% 높아지고,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아밀레이즈 활성도 최대 20.6% 까지 증가돼 밥을 지었을 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율이 높아진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마늘재배 논에 해담쌀 심으면 OK

– 월동 원예작물 재배 후 작물 품종 선택 잘해야 –

○ 경남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월동작물 재배 논에 적합한 조생종 벼 품종으로 기존에 이용되고 있던 '운광벼'와 함께 '해담쌀'을 새로 선발하여 농가보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경남을 포함한 남부지역에서는 동계작물로 마늘·양파·시금치 등 다양한 원예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 월동 원예작물을 재배했던 논은 수확을 마친 후 다음 작물로 벼를 재배하게 되는데, 간혹 전 작물 수확이 늦어질 경우 벼 이앙시기를 놓쳐 벼농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월동원예작물 종류에 따라 재배기간이 맞는 조생종, 또는 중생종 벼 품종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특히 마늘재배지에서 다음 작물로 재배되는 벼는 6월 중순에 이앙하여 10월 초순에는 벼 수확이 되어야 안정적인 마늘재배가 가능하다.

○ 일부 농가에서는 벼 생육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충분히 익기도 전에 수확하게 됨으로써 미질 저하 등 피해를 입기도 한다.

○ 이렇게 수확한 벼는 지역 RPC에서 고품질 브랜드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재배와 연계된 작부체계에 적합한 벼 품종 선발을 위하여 2년간 연구를 수행해 온 결과,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운광벼'와 생육기간, 수량 등이 유사하면서 미질은 특히 우수한 '해담쌀'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 '운광벼' 품종과 마찬가지로 조생종인 '해담쌀'은 싸리기 발생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패널에 의한 식미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어 마늘재배 후 다음 재배작물로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도 농업기술원은 2년간 진행된 연구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해담쌀 종자를 생산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서 실증시험 겸 만족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반응을 분석하여 벼 종자 보급체계 포함과 지역 RPC연계에 의한 고품질 쌀 브랜드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겨울철 한파, 복숭아나무 원줄기 보온자재로 대비

– 보온력 높은 피복재로 나무 밑둥 부분 감싸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서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복숭아나무 원줄기(주간부)를 보온자재로 감싸줄 것을 당부했다.

○ 복숭아나무는 추위에 약해 다른 과수에 비해 동해(어는 피해)를 쉽게 받으며, 특히 원줄기의 밑둥 부분이 동해에 약하다.

○ 지난 2013년 사례를 보면 '장호원황도' 등 주요 복숭아 품종은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20℃ 이하를 기록한 경우에 원줄기 동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 전국적으로 복숭아 동해가 발생한 2013년에는 원주·이천·음성·충주·연기·보은·영동·임실 등 주요 복숭아 재배지에서 동해가 심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1월 3~5일경 일 최저기온은 영하 20℃ 내외를 기록했다.

○ 복숭아 주산지에서 많이 재배하는 '장호원황도', '천중도백도' 등 대부분의 품종은 최저기온 영하 20℃ 이하인 경우에 동해가 많이 발생했다.

○ 내한성이 약한 품종인 '가납암백도'와 '경봉' 품종은 영천·전주·남원 등 남부지역에서 최저기온 영하 17℃ 내외인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 복숭아나무 원줄기 동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온력이 높은 두꺼운 피복재로 밑둥 부분(땅위에서 50cm 부분까지)을 피복하는 것이 좋다.

○ 복숭아나무는 원줄기 외에 꽃눈, 꽃눈 가지 등도 저온에 의해 동해가 발생하지만, 원줄기가 다른 부위에 비해 먼저 얼어 피해가 심각하므로 동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줄기를 보호한다.

○ 보온자재로는 볏짚, 다겹 부직포(5~6겹), 두꺼운 부직포, 다겹 사료 종이(12~18겹), 보온패드 등 보온 효과가 높은 자재가 좋다. 보온패드는 방수 천과 두꺼운 소재(10㎜ 이상)의 제품이 좋다. 보온자재는 통기성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온 효과가 좋다.

○ 낮 시간에 피복 부위의 온도를 높일 우려가 있는 얇은 부직포, 검은색 부직포 또는 비닐 소재는 권장하지 않는다.

○ 농촌진흥청 과수과 윤석규 박사는 “복숭아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해 추위에 약해 동해가 발생하므로 해마다 겨울철 원줄기 피복작업 등으로 월동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갑작스런 한파는 복숭아 원줄기에 치명적인 동해를 일으키므로 미리 피복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복숭아 주간부 동해 양상

▲ 볏짚 피복

폭설 시 가축관리 요령 제시

- 축사 지붕 눈 치우고, 사료 10% 늘려 먹여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기상 이변에 따른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축과 축사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폭설에 파손된 축사는 빠르게 복구하고, 지붕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며 쌓인 눈은 내부 온도를 높여 빨리 녹인다. 낡고 오래된 축사는 미리 내부 중간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설치해 지붕이 주저 앉을 경우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무너진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가 가까워진 가축은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폭설 이후에는 축사 바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볏짚,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준비해 깔아주고 축사 옆에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한 습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가축의 생산활동 및 유지에 좋지 않으므로 사료는 평소보다 10% 정도 먹이는 양을 늘려서 준다.

○ 눈과 비가 지속될 때 가축 피부표면에 묻은 물은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므로 빨리 없애고, 축사 내부에 깔짚을 깔아준다.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이 머무는 방은 보온관리에 더 신경 쓴다.

○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샛바람은 가축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갓 태어난 가축은 보온과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기침과 설사를 하는 어린 새끼들은 격리해 치료하며 배설물은 즉시 없애고 철저히 소독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전남농기원, 창업교육으로 농식품 창업가 27명 양성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산업분야에서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5회 160시간 창업을 위한 현장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27명의 창업가를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창업가들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창업양성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로 창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예비창업가로 선정되었다. 분야별 성과로는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청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업하였다.

○ 전남농기원은 돈 버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5년 까지는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경영역량을 향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2015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인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을 개발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 농업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의 성공마인드, 기술변화 동향, 브레인스토밍으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으로 만들어진 상품 판매를 위하여 유통업체의 바이어들과 상담회를 가졌다.

○ 김성일 원장은 "나라 안팎이 어려워 농업경영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해 가야 한다고” 하면서 “농식품 창업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올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총 1천 622억

– 시·군 식품산업 업무 평가 결과… 대상 해남군 등 6개 시·군 표창 –

○ 전남도는 2016년 시·군 농산물 유통식품산업 업무 평가 결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총 1천 622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 학교급식 공급의 경우 친환경쌀 582, 과채류 495억원, 총 1천 77억원이고,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경로를 활용한 판매 실적은 545억원이다.

○ 이 같은 판매 실적은 농산물 판촉,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 산업육성 등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4개 분야 21개 항목 29개 평가지표를 마련, 각 시·군의 2016년 1년간의 실적을 총결산한 결과다.

○ 시·군별로는 해남군이 대상 영예를 안았고, 최우수에 강진과 담양군, 우수에 나주시·보성·고흥군이 각각 선정됐다.

○ 해남군은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음 점수를 받았다. 강진·담양군은 친환경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실적이 우수하고, 나주시·보성·고흥군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실적과 6차산업화 육성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다.

○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농산물 유통식품산업 종합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유통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 2017년 시책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7년 사료용 쌀 공급 52만톤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쌀 재고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 쌀 52만톤(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 내년에 사료용으로 처분할 52만톤은 2013년산 재고 쌀(현미 25만톤)과 2014년산 시장격리 쌀 전량(현미 27만톤)으로, 올해 사료용으로 공급한 물량(10.1만톤) 보다 5배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 이번 사료용 공급은, 현재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전량(29만 9천톤)을 시장격리 하였음에도 정부쌀 재고 과잉이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제기됨에 따라 쌀 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재고 쌀 52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 재고 관리비용 절감, 사료원료곡물 수입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약 1,162억원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내년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은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판매가격은 최근 1년간 옥수수 수입단가와 쌀의 옥수수 대비 사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208원/kg(현미 기준)에 판매할 예정이다.

○ 한편, 12월 5일자 산지쌀값은 128,328원/80kg으로 전회(11월 25일) 대비 0.1% 하락한 수준이며, 신곡 가격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5일 이후 전회 대비 하락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 물량은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I 총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체계 강화

○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16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오늘 부터 격상하였다.

○ 심각 단계로 격상은 △AI가 서해안 지역(경기,충남·북,전남·북)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지역간 수평전파(안성-음성) 확인 △살처분 마리수 증가 △야생철새의 도래 확대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현장점검 결과 영남지역 산란계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정부는 이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이번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한해 설치되었던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한다.

○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 외 전국 일시이동중지 확대 실시, 전국 축산농가(가금 관련 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경계단계에서도 이미 심각 단계 준하여 이러한 방역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역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 관련 농장주들은 소독예찰을 강화하면서 외부인차량 등 농장의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한다.

○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발생 농장 내의 가금류는 H5형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금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 농장방문 조치기간을 당초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방역대 내에 있는 식용란은 GPS를 부착한 식용란 수집 전용 차량을 지정하여 환적장을 통해 반출하도록 하되, 거점소독 시설에서의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 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가금육 등은 익혀 먹기 때문에 만에 하나 AI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더라도 안전하다.

○ 끝으로 정부는 심각 단계로의 격상 조치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AI를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호주, 유기농시장 성장세 지속

○ 호주에서는 유기농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음료, 가공식품, 주류 심지어 애견사료까지 확대되고 있음. 전 세계 유기농 시장은 910억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음. 호주 유기농 시장 규모는 약 20억달러로 연간 5.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유기농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자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려는 관련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유기농장을 가진 국가로 2,200만 ha의 경작지가 유기농으로 운영됨.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토지는 1,700만 ha임.

○ 유기농 요거트 시장은 호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기농제품 시장 중 하나임. 유기농 요거트 대표 기업 파이브에이엠(Five:am)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기업사례로 손꼽힘. 파이브에이엠 설립자는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기농 요거트 생산을 목표로 유기농 우유를 공급할 농가를 직접 찾아 나섰음.

○ 파이브에이엠은 빅토리아주의 유기농 우유목장협동조합(Organic Dairy Farmers Co-op)으로부터 매주 7만리터의 유기농 우유를 공급받고 있음. 이 협동조합에 가입된 모든 농장은 유기농 인증기관인 NASAA (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ustralia)의 동물 복지, 환경, 관리 기준에 맞춰 운영됨

○ 호주에서 2번째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기농제품은 쇠고기임. 2011~14년 사이, 유기농 쇠고기 시장은 127% 성장하였음.

○ 일반 육우와 차별화해 인공비료, 항생제,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쇠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음.

○ 유기농 음료와 와인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100% 유기농 주스의 가격은 리터당 4.3달러로 일반 주스 평균 가격인 1.73달러보다 약 2배 높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주스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 외에도 유기농 와인·커피·차(tea)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호주 유기농 가공식품과 화장품도 현지 소비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대형 슈퍼마켓이 PB(Private Brand) 저가 유기농 가공식품을 출시해 가격 경쟁이 심화됨. 화장품 제조사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피부 및 헤어관리제품을 출시하여 유기농 화장품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음.

○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승인한 유기농 인증기관은 총 6개로, 각 기관은 정부의 유기농 인증 지침을 준수해야함. 호주 유기농 인증기관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은 NASAA와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임.

○ 인증기관은 유기농 제품 제조기업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 유기농 인증 검사를 통과한 기업만이 유기농 로고와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부여받음

○ 유기농 인증 과정은 약 1~3년 소요됨. 가공식품은 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소금과 물을 제외한 첨가물은 완제품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음.

○ ACO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 유기농 인증기관을 통해 중국·한국·미국의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호주업체가 작년에 비해 47% 증가하였음. 이는 호주업체에게도 유기농 인증이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FDA, 식품 안전성 강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FDA) 식품 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FDA는 식품 안전점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에게 식품 안전과 이에 관한 규정 준수를 상기시키고 있다.

○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품목 중 aT 뉴욕지사가 우리 대미 수출업체들이 눈여겨 볼만한 사례로 꼽은 것은 주스와 절임식품에 관한 내용이다.

○ FDA는 현지 음료 업체인 스테이프레쉬푸드(Stay Fresh Foods)가 생산, 유통 중인 일부 주스에서 부패한 고기에서 자라는 세균인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Clostrium Botulinum)'이 검출됐다며, 이는 생산 공정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두 번째 문제 제품은 중국 업체인 웨이팡선우식품(Weifang Sunwoo Foods)가 유통하는 절임 무로, 주 식재료인 무와 각종 양념들이 적절한 온도와 공정시간을 거치지 않아 변형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라벨링과 관련해서도 제품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 및 포장되고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안전한 식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aT 뉴욕지사는 FDA가 식품안전성과 관련 문제를 삼고 있는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미 수출 농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2. 19.(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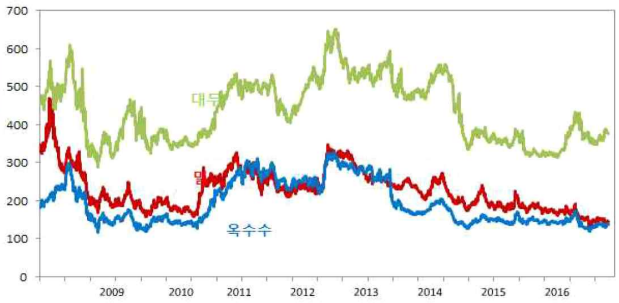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한 기대로 대두 선물 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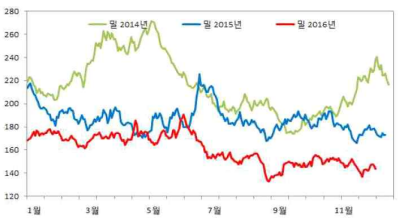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12.1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1)	2015 평균
밀	150.35	–	148	186
옥수수	140.23	▼0.1%	136	148
대 두	380.88	▲0.7%	369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3월물, 대두 : 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환매수세 유입과 주요 생산지역의 냉해에 대한 우려 등에 지지를 받아 장 초반 상승하였으나 장 막판 다시 하락하며 보합세로 마감하였음. 지난 한 주간 밀 선물 가격은 1.3% 하락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수급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아 전일 대비 0.1% 하락하였음. 그러나 환매수세 유입 등으로 가격 하락은 제한적임. 지난 한 주간 옥수수 선물 가격은 0.6%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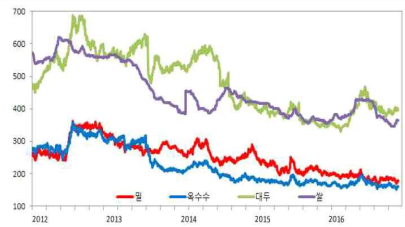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유지작물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 수요에 대한 기대로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또한 아르헨티나의 건조 기후에 대한 우려가 오래지속 되면서 대두 가격의 상승을 지지하였음. 미국과 남미에서 수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지난 한 주간 대두 선물 가격은 0.1%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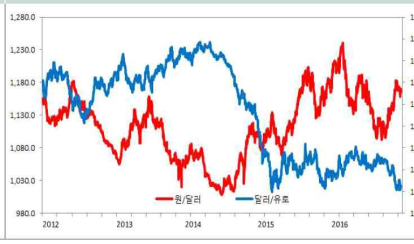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중국의 꾸준한 수요와 CIF barge basis value의 강세로 상승세 지속.
- 16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감산 계획 발표,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 상향 등으로 상승했고, 이라크의 원유 수출 계약,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는 상승폭을 제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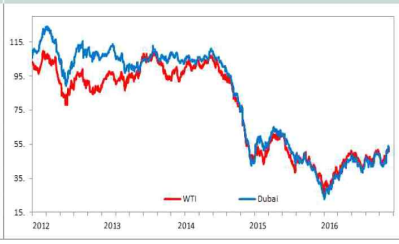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5	▼2.2%	환율	원/달러	1,180.1	▲1.0%
	옥수수	161	▲1.3%		달러/유로	1.0425	▼0.8%
	대두	398	▲0.5%	국제유가	WTI	51.90	▲2.0%
	쌀	367	▲0.3%		Dubai	51.69	▲0.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2.15(수출가격), '16.12.16(환율), '16.12.1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GAP 실천기술 담은 영농기술서 나와

– 벼·두류·서류·유지작물 품목군별 발간·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이하 GAP) 생산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GAP의 기본 원리를 쉽게 이해하면서 실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GAP 영농기술서' 4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한 GAP 영농기술서는 벼(쌀), 두류(콩·팥·녹두), 서류(감자·고구마), 유지작물(참깨·들깨) 등 4 품목군을 대상으로 했다.

○ 이 영농기술서에는 농업인이 영농 준비 단계부터 재배·수확 그리고 출하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해요소 안전관리, 농업생태계 보전, 농작업자 안전·복지 등 종합적인 실천기술을 상세히 수록했다.

○ 또한 부록에는 작물별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발생생태 및 관리방법, 병해충 방제에 적용 가능한 약제 목록도 담겨져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품목군별(벼·두류·서류·유지작물) GAP 영농기술서 4종을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주산지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까지 GAP 농산물 재배 면적을 50%로 확대할 목표를 세워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GAP 영농기술서가 보급되면 GAP 생산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류재기 유해생물팀장은 "GAP 영농기술서는 현재 농업현장에서 GAP를 실천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도전문가가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12월 21일, 24절후의 스물두 번째 절기 동지

○ 24절후의 스물두 번째 절기.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다.

○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하였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 라는 말처럼 동지첨치(冬至添齒)의 풍속으로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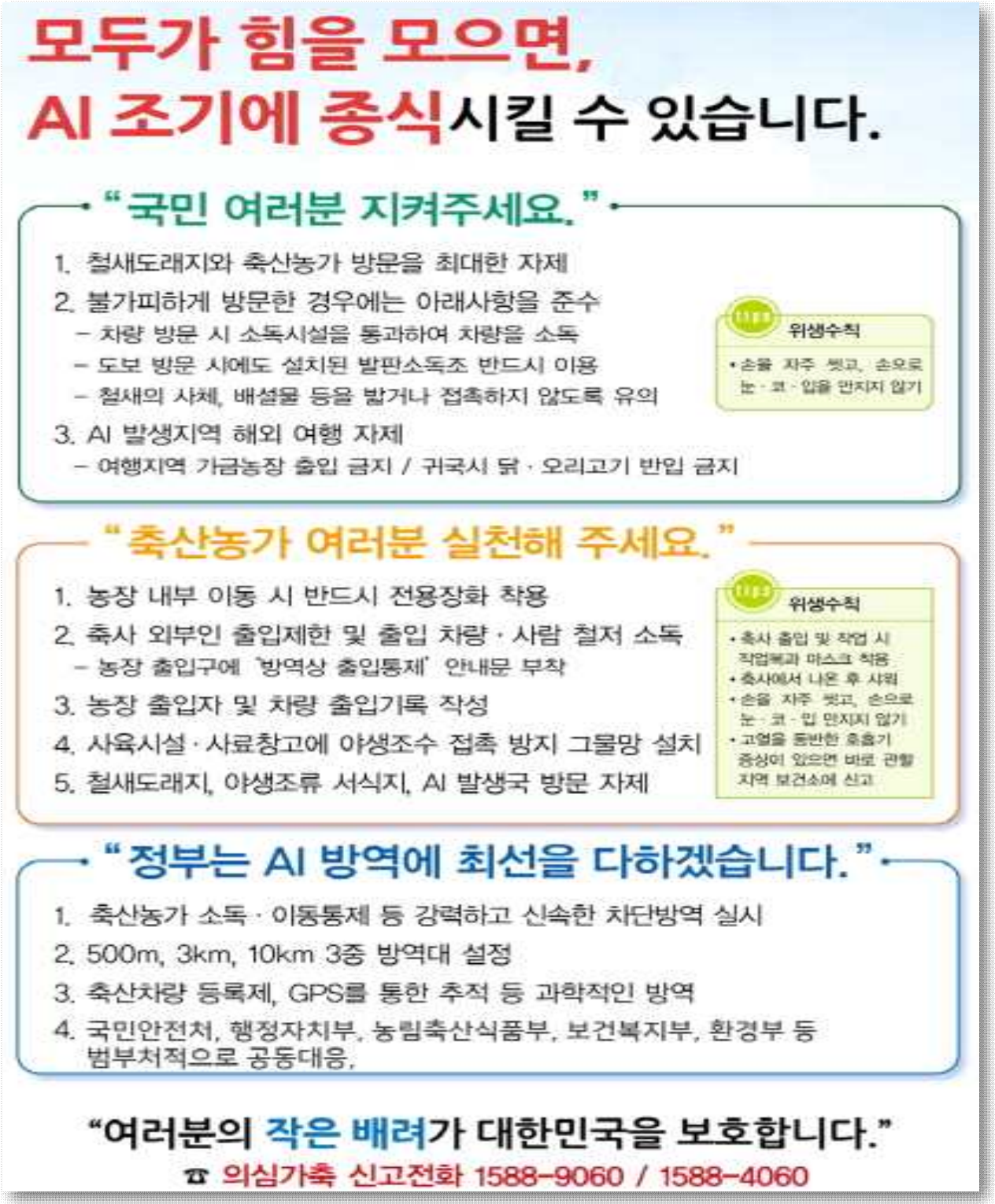
○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 또한, 동짓날 연못의 갈라진 얼음의 모습이 마치 쟁기로 밭을 갈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용갈이[龍耕]이라고 한다.

○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 갈아나간 자취가 있으면 이듬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복판을 횡단하여 갈아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데로나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 AI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
전남농업정보 11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